

아소 신사의 의식과 제례

아소 신사의 주요 제례는 농사 주기에 맞춰 거행됩니다. 봄에는 모내기를 위해 빌고, 여름에는 가뭄이나 호우, 폭염,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빌고, 수확 후 가을에는 신들에게 감사제를 올립니다. 아소의 농경 제사는 1982년에 그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문화청으로부터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

아소 신사가 3월에 개최하는 ‘히후리신지(쥐불놀이)’는 농업의 신이 결혼하는 것을 축하하고 오곡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로 1000여 년 전부터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. ‘히후리신지(쥐불놀이)’에서는 띠로 만든 햇불을 휘두르며 이 신사의 12 제신 중 한 신인 농업의 수호신 구나쓰노카미(國龍神)와 그의 아내(지역의 다른 신사에서 가져온 신목가지로 이를 나타냄)의 결혼을 축하합니다. 두 신의 혼인이 풍년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.

7월 말에 열리는 ‘온다 마쓰리’도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입니다. 말을 탄 신관들,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옷차림을 하고 신들에게 바칠 음식을 머리에 이고 운반하는 14명의 (우나리라고 불리는) 여성들, 끝에 남·여·황소 머리가 달린 막대를 든 3명의 지역 소년들과 함께 신사의 제신들을 신여(가마) 4대에 태우고 지역의 논을 둘러봅니다. 관객들은 신여(가마)에 이삭이 달린 벼를 던집니다. 벼이삭이 신여(가마) 지붕에 많이 붙을수록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.

9월 하순에는 쌀 수확을 축하하는 ‘다노미사이(벼 수확 감사제)’가 열립니다. 이 축제에서는 야부사메(질주하는 말 위에서 화살을 과녁에 쏘는 일본의 전통무술)가 봉납됩니다.

농경에 특화된 제례와 더불어 아소 신사의 신관들은 매년 6월 초 ‘화구 진혼제’를 지냅니다. 신관들은 축사를 하며 아소산의 3신에게 바치는 공물로서 고헤이(흰 종이로 만든 장식이 달린 신장대) 3개를 아소산 분화구에 던져 넣습니다.